

Daniel K. Darko 박사, 루가 복음, 세션 5, 유아기 이야기, 파트 3, 성전 담론

© 2024 Dan Darko 및 Ted Hildebrandt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유아 이야기, 파트 3, 성전 담화입니다.

Biblica e-learning 시리즈에서 루가 복음을 공부하는 것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서론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고, 테스트를 거쳐 유아기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전 담론을 살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전 담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세례자 요한과 그의 탄생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언적 주장이나 선언, 특히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적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을 둘러싼 상황,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 그리고 그가 양을 마구간에 두고 출산한 곳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루가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람들을 살펴보며 세션을 마쳤습니다. 마태와 달리, 루가 복음서에서 방문자들은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성전에 제시되었을 때와 요한이 성전에 제시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에서 일어날 몇 가지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전 담화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유아기 이야기의 더 넓은 틀에서 성전 담화를 살펴볼 때 주의 깊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2장 21절에서 누가는 우리의 주의를 예수의 탄생으로 이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8

일이 지나서, 그는 예수라 불렸는데, 이는 그가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22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케 하는 때가 되자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를 처음 여는 모든 남자는 주님께 거룩하다고 불리어야 하며,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계시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려고 어린 예수를 데려왔을 때, 그는 그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떠나게 하십니다.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당신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을 예비하셨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돌리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종교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매우 헌신적이어서, 소년 예수를 낳는 것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모든 종교적 의무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70~80마일 떨어진 나사렛에서 왔지만, 여전히 기대되는 것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올 것입니다.

예수가 성전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제가 빠르게 지적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년의 헌신입니다. 모든 맏아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약 6주 후에 성전에 헌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부모는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첫 아이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지 40일 이내 또는 40일 후에 종교적 정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성전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마리아와 요셉을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전통을 따르고 싶다면,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더 많이 언급된 전통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특정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입니다.

루크는 유아기 이야기에서 남성-여성 쌍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남자 시므온과 여자 안나를 볼 것입니다. 증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두세 명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증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두 증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기의 헌신과 두 증인의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할례와 이 아이가 성전에 어떻게 바쳐질 것인지와 같은 문제를 빠르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24절은 일어날 일 중 일부에 우리의 주의를 빠르게 끌어줍니다.

여덟째 날이 되면 아이가 할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에 따라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이름을 붙여야 하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름을 붙여야 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언급한 이름이 그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논쟁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과는 달리,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말지는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가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야훼가 구원합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들이 성전에 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를 볼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독실한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억압하거나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유대인을 없애서 교회가 번성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온다고 제안하고 홍보하는 생각에 대해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으로서 우리 세상에 오시기로 선택하셨고, 예수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독실한 유대인인 부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누가복음에서 기독교는 사도행전에서 제2성전 유대교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케 하는 때가 되자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를 처음 여는 모든 남자는 주님께 거룩한 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우리는 또한 제사로 바쳐질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뭔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이 부모들의 독실한 본성에 대해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여덟째 날에 예수를 할례하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전통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통에 따라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볼 수 있듯이 T의 엄격한 정화법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글자를 따르고자 하는 독실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들었듯이,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바칠 제물, 즉 산비둘기나 두 마리의 집비둘기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말해줍니다. 누가는 그들이 제물로 바친 것이 그들이 가난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레위기 12:6~8에 따르면, 그것은 첫 번째이자 가장 비싼 제사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화 의식을 위해 성전에 가져올 수 있는 종류의 제사입니다. 사실, 특히 레위기 12:8은 당신이 어린 양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녀는 두 마리의 산비둘기나 두 마리의 집비둘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인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데려가집니다.

율법 준수와 율법 기대가 충족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루크에게는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습적인 의식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세상에 오는 메시아입니다. 누가는 성전에 두 증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삶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는 데 바쳐졌습니다. 이 두 증인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증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본문을 공부할 때 이들을 볼 때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시므온입니다. 누가는 시므온이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데 헌신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와 슬퍼하는 이스라엘, 놀란 이스라엘, 로마 통치 하의 이스라엘,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외국인들이 감지하는 이스라엘, 지금 통치 하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올 때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볼 날까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당연히 오늘이 그 날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발언으로 부모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그의 관찰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또한 루크가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재빨리 말해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크에게 있어서 성령을 빼면 많은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찬양을 표현하는 방식은 예수의 부모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시므온의 말씀에서, 아마 21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율법의 관례에 따라 그를 위해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를 데려왔을 때, 그는 그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떠나게 하십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셨고,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ESV는 이방인을 번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실제로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 되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즉 요셉과 마리아는 그에 대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반대받는 표적을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네 영혼을 꿰뚫어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이 아이를 메시아로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당장은 당신이 예수의 부모이고,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전개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은 천사들이 들려주는 모든 일들, 증인들이 오는 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일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전통적인 행동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하겠지만, 이 사람 시므온이 성전에 옵니다. 그는 항상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선지자처럼 성전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누가는 그가 그때 성전에 있으라는 성령의 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에 대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마치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듯하지만, 마리아, 마리아는 아마도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을지가

그녀에게도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시아로 옵니다.

루크는 이어서 두 번째 증인인 안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그리스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증인이 될 것이고, 놀라운 여성, 놀라운 노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예언자이고 꽤 나이가 많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루크가 예언자가 있다고 말해줄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루크가 여기에 여성 예언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매우,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어딘가에서 그는 빌립의 딸들 중에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 그는 아가보와 사도행전 13장에서처럼 교회에서 재능 있는 지도자인 사람들, 즉 교사와 선지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학자들은 그들이 가장 평등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크에게 있어서 신이 사람들을 사용할 때, 그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헌신과 평화 의식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선지자였던 안나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후, 그 문장을 그리스어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84년 동안 과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여자이자 예언자가 와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안나의 종교적 삶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안나는 그녀의 삶을 금식과 기도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며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녀는 그 아이의 두 번째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추어 걸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되살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 정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헌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루가 복음서 2장 바로 옆, 예수님의 탄생과 헌신에 대한 간증 옆에 평범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선지자로 말했지만 안나는 선지자로 언급됩니다.

그녀는 선지자로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기도와 금식에 헌신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녀의 예언적 전통에서 그녀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사도행전에서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삶, 사역, 사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누가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용 가능한 남성과 여성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의 깊게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39~40 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부모가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갈릴리와 나사렛 마을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자라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이, 누가는 여전히 유대인의 예언적 담론이 더 큰 예언자가 올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요한의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우 빠르게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헌신하고 유대인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성전에서 다시 한 번 2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는 이제 유월절을 위해 성전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가 12살에 여기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12살은 의미심장합니다. 소녀들은 한 번에 결혼과 약혼을 위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우리가 현대에서 미츠바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삶의 한 단계에서 서서히 성숙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모님과 예수는 이 순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아마 저는 41장부터 52장까지의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의 부모님은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관습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 절기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것을 몰랐지만, 그가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 동안 여행을 갔지만, 그들은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그를 찾기 시작했고, 그를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찾았습니다.

사흘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그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해력과 대답에 놀랐고,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나는 너를 몹시 괴로워하며 찾았노라.

그리고 그는 예수이시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는 그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 와서 그들에게 복종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성전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곳에서 부모가 떠나는 동안 그가 머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아이가 실종된 것을 모른 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비난하기 전에, 몇 가지 문화적 간극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축제가 친구, 친척, 이웃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캐러밴을 타고 여행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 캐러밴에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12살짜리 아이와 같은 어린 소년은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습니다.

보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음식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아기 예수나 어린 소년 예수 또는 십 대 예수가 아직 십 대가 아니지만 12살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동네의 다른 소년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그룹과 함께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소년 예수를 만나지 않고 70, 80마일을 여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도 집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수색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루 동안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하루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를 찾기 위해 또 다른 하루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머무를 3일과 맞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그를 만나고, 예수는 매우 심각한 말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예수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양부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는 성전의 가르침 전통에 몰두할 것이고, 그는 매우 심오한 질문을 하고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제, 소년이 "왜 나를 걱정하십니까?"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실제로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글썄요, 요셉이 아버지여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언급하는 전통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진행 중이었던 거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루크는 우리가 그가 완고하고 시끄러운 어린 소년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를 대비해, 루크는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그들과 복종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조지 그린리 예수가 성전에 있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좋아합니다. 성전은 신의 현존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신의 강박관념에 따라 거기에 있습니다. 요점은 그가 자신을 신의 목적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결정적인 나이인 12세에. 우리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되고 우리의 전통에 대한 생각에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친부모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12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예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하는 데 관여합니다. 만약 내가 12세에 성숙해진다면, 나는 종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살 에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12살에 사역을 시작하실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유대인 소년에게 12살의 결정적인 시기가 예수가 성전에서 발견되어 가르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키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면, 루가는 우리가 생김새라고 부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루크는 사람들의 신체적 체구,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장한 태도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루크는 세례자 요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앞서 언급했고, 그는 요한이 어떻게 강한 정신으로 성장했고 그가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어요. 아니. 그는 남자로 성장했다고 그는 말하려고 해요.

그는 강한 의지와 사명에 대한 헌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무지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시 생김새에 들어갑니다.

예수는 사회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신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루크는 당신이 예수의 생김새에 대해 뭔가 알기를 원합니다. 루크는 나중에 그 나무에 올라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줄 사람입니다.

그가 우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루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끔 지도자의 성격, 즉 신체적 키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크는, 예, 예수는 이런 지역에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크래독의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유대교와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아들의 그 기간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6주차에 그의 어머니가 정화되었고, 12세에 바 미츠바를 치렀고, 30세에 공적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루크가 예수의 삶에서 표시한 순간들입니다. 루크가 이렇게 하고 이 시점에서 예수의 사역이 T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때, 독실한 토라 준수 유대인인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는 이제 그 틈을 메우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30세에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자로서 누가복음의 처음 두 장을 잘라내더라도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가 온 모든 일이 제2성전 유대교의 전통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위치시키고, 확인하고, 예언적 성취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요한이라는 인물로 오시고, 그런 다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제가 강조한 이 영역에서 자랍니다.

요한, 그 엘리야는 1장 80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그가 3장을 열 때 10년이나 1년의 간격을 두려는 듯이, 그는 우리를 준비 사역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선행될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유아기 이야기에 대한 토론을 주의 깊게 따라왔기를 바랍니다.

유아기 이야기의 세 부분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전통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루크의 담론에 대한 매우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고, 구유에서 태어나 목동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나사렛과 다른 곳에서 온 그의 배경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할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누가는 그가 이 나이, 12년의 삶에서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 기반과 가르치는 능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와 사역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기도와 소망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유아 이야기, 파트 3, 성전 담화입니다.